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 부고가 날아왔다

**부**고가 날아왔다. 암 진단을 받은지 불과 2개월 만이었다. 최소한 1년은 가리라 기대했다. 의사도 그리 얘기했다.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서울에서 첫 항암치료를 받고는 옥천으로 훌쩍 내려갔다. 그다운 결정이었다. 굳이 비싼 서울 병원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것이었다. 항암치료를 할 때나 서울로 올라오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옥천으로 내려간 뒤 죽도 잘먹고 잠도 잘 잔다고 했다.

말은 그리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미 온몸으로 퍼진 암세포를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좀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느니 남은 기간 이나마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다. 치료 받으러 서울로 올라오라는 채근이 있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지인들이 안타까워하면 그저 싱긋이 웃기만 했었다고 한다. 2차 항암치료 예정일로부터 닷새 째 되던 날 그는 훌쩍 떠나갔다.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올해로 34살. 미혼. 아직 봄이면 리얼락 향기가, 여름이면 수박 향기가 그리고 가을이면 들국화 향기가 날 것 같은 나이요 몸이었다. 그는 올 2월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소설을 쓰고 싶어했다. 소설도 몇 편 썼다. 그의 삶이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시보다 슬프고,

악몽보다 잔혹한데, 왜 굳이 소설을 쓰겠다고 했는지. 복잡한 것 제쳐두고 그 예쁜 얼굴 밑천 삼아 좋은 사람과 사랑이나 했으면, 신산했던 그의 삶이 그나마 조금 보상받았을 텐데. 그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도 전 어떤 사건에 휘말려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먼길 떠나기 전 그는 아프게 쌓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모두 지워버렸다고 한다. 소설이며 일기며 시며 글자로 된 모든 것들은 말끔히 없앴다고 한다. 사람의 기억이란 게 오래 갈리 없지만, 스스로 그 흑독했던 지구 여행을 빨리 잊고 싶었던 것 같다. 자신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도 빨리 잊으라 한 것 같다. 그의 몸은 이튿날 바람 속으로 물 속으로 땅으로 날려 버려졌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없다. 그가 잠시 이 세상에 왔었다는 사실을 증거 할 것은 이젠 아무 것도 없다.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그날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다행히 재가 되어 고향 땅에 뿌리지던 날은 비는 오지 않았다. 바람은 선들선들 잘도 불었다. 장대비 뒤 끝이라 산과 들은 또렷했다. 석양의 햇살은 눈부셨고, 해거름은 붉디 붉었다.

아, 그사람은 그렇게 가는구나. 너는 그렇게 갔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당신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았다. **100%**